해남군수 3연속 하차 위기 지역사회 술렁

밝혔다.

박철환 군수 인사·공사 비리 구속 행정공백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… 현안사업 차질 불가피

인사·공사 비리 등으로 해남군수가 3대 째 연이어 중도하차할 위기에 처하면서 지 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.

박철환 해남군수가 뇌물수수, 직권남 용,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 12일 검찰에 구속되면서 해남군은 2007년 박희 현, 2010년 김충식 군수에 이어 3대째 군 수가 비리 혐의 등으로 행정공백 사태를 빚는 오명을 기록하게 됐다.

박 군수는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 순위

를 조작하고 부당한 인사를 한 혐의를 받 고 있다. 또 군청 발주공사 업체 선정과정 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

박 군수의 사법처리는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해남군이 2011~2015년 직원 근무평 정 순위를 임의로 조작한 사실을 적발해 담당자들에게 주의 처분과 징계를 권고하 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.

광주지검 관계자는 "선출직인 지자체

장이 부당한 인사를 하게 되면 공직사회는 줄서기와 부패로 얼룩지게 된다"며 "전국 지자체에서 관행화된 단체장의 부당한 인 사 개입을 일벌백계해 공직기강을 바로세 우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"고 수사의지를

투데이

박 군수 전임인 김충식 전 군수도 지난 2010년 관내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경관조명업체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군수직에서 물러났다. 박 희현 전 군수는 군청 직원 6명으로부터 인 사청탁을 대가로 1억1000만원을 받은 혐 의로 구속됐다.

해남군은 박 군수의 구속에 따라 양재

승 부군수의 군수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 갈 전망이다.

해남지역민들은 이번 해남군수 구속 사 태로 지역 이미지 실추는 물론 지역의 미 래가 걸린 굵직굵직한 현안사업들도 차질 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.

박 군수는 민선 6기 취임과 동시에 '1000만명 관광객 시대'를 목표로 가학산 치유숲 조성, 땅끝해양자연사 박물관, 우 수영 명량대첩해전사 기념전시관, 해상 케 이블카 건립, 두륜산 소망길, 미황사 둘레 길, 미로공원 조성 등에 집중해 왔기 때문 이다.

/박정욱기자 jwpark@kwangju.co.kr

한센병 박물관 개관, 국제학술회의 개최

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 행사 황교안 총리 17일 기념식 참석

국립소록도병원은 개원 100주년과 제 13회 한센인의 날을 맞아 16일~18일 사흘간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연다고 15 일 밝혔다.

먼저 17일 열리는 공식 기념식에는 황 교안 국무총리, 이낙연 전남도지사, 김 무성 의원, 양승조 의원 등을 비롯해 전 국에서 한센인 5000여 명이 참석한다.

특히 40여 년 동안 소록도 한센인을 돌 본 '한센인의 천사', '할매 수녀' 마리안 느 스퇴거(Marianne Stoeger) 수녀도 참석해 100주년 행사를 빛낼 예정이다.

기념식에서는 한센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김정희 아프리카 어린이 돕는 모임 대표 등 유공자 8명에 대한 훈·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.

한센인의 생활유품, 창작품 등의 100 년 역사를 기록할 한센병 박물관도 문을 연다. 박물관은 한센병, 인권, 삶, 국립 소록도병원을 주제로 역사적 자료를 전 시한다.

광주일보

이번 기념행사에는 영국, 뉴질랜드, 일 본 등 국내외 한센병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해 한센 역사·인권, 의료, 재활 등을 논의하는 국제 학술회가 열릴 계획이다.

이 밖에도 그간 소록도병원에서 함께 한 직원들이 한데 모이는 홈커밍데이, 한마음음악회, 소록도 자원봉사자의 날, 소록도 작품전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이뤄진다. 소록도병원은 한센병 환자 를 전문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시설로 지 난 1916년 설립됐으며 이듬해인 1917년 5월 17일 정원 100명에 환자 73명으로 공식 개원했다.

/이종행기자 golee@kwangju.co.kr

광주시 '뿌리산업' 성과 톡톡 지난해 매출 116억원 증대

광주시의 '뿌리산업' 지원책이 매출증 대와 고용창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.

광주시는 자동차, 전자, 금형, 광산업, 정보가전 등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분야 에 대한 행정·재정적 지원을 적극 펼친 결 과 지난해 매출 증대 116억원, 고용창출 55명의 효과를 봤다고 15일 밝혔다.

시는 산업통상자원부, 남부대 산학협력 단 등과 지난해부터 3년간 국·시비 25억 원을 이 분야의 산업에 투입해 지원하고 있다.

지난해에는 시제품 제작지원 20여건, 국내·외 뿌리산업 전시회 참석 등 마케 팅·홍보, 해외 진출 기업과 MOU, 특허· 컨설팅 지원활동을 벌였다.

평동산단 내 금형 집적화 단지를 뿌리산 업 특화단지로 지정하기도 했다.

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이 전국 17개

시·도 가운데 가장 재정이 열악한 전남도

내 22개 시·군 재정을 하향평준화할 수 있

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. 그나마 일정

수준의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는 전남 몇

몇 시·군의 재정에 손을 대, 더 가난한 나

머지 시·군에 일률적으로 배분하기 때문 이다. 전남도와 22개 시·군의 재정이 나아

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 같은 '시·도별 나

눠먹기'는 결국 지역 간 불균형만 고착화

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

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8

년부터 시·도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%

가량을 도세로 하고, 조정교부금을 시·군

에 재분배하되 재정이 열악한 시·군에 더

많이 배정하는 방식으로 조정해 지자체 간

재정격차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재

정개편안을 28일 발표할 예정이다.

/ 최권일기자 cki@kwangju.co.kr



온누리에 부처님 자비를

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인 14일, 광주 서구 치평동 무각사 대웅전에서 봉축법요식이 열리 고 있다. 불자들이 아기부처님의 관욕의식을 하고 있다. /김진수기자 jeans@kwangju.co.kr

■ 전남 지자체, 지방재정 개편안 반발 왜?

없는 살림 나눠먹기…시군재정 하향 평준화

여수·순천·광양·영광 등 법인지방소득세 절반 타 시군 분배

군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것이다. 전남지역 22개 시·군 가운데 법인지방소 득세를 평균 이상 징수하고 있는 곳은 여 수, 순천, 광양, 영광 등 4곳에 불과하다. 지난해 여수시가 400억 여원, 광양시가 323억원 등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받아 1·2 위를 차지했다. 진도군은 고작 4억원의 법 인지방소득세를 받는 등 나머지 18개 시ㆍ 군은 100억원 미만이다.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대로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도

세로 재분배할 경우 여수시의 경우 200억 원 내주고 40억원을, 진도군은 2억원을 내

주고 40억원을 받아가게 된다. 전남도와 일부 시군은 이 같은 방안에 반발하고 있다. 특히 전남도내 22개 시·군 의 재정 형편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열 악한 상태에서 이 같은 개편안은 22개 시· 군 재정을 하향 평준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.

2016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19.3%(도 본 청 16%, 시·군 13.5%)에 불과하다. 지난

믿음이 있는 대학 · 믿음을 주는 대학

광신대학교

KWANGSHIN UNIVERSITY

해 17.8%(도 본청 14.5%, 시·군 12.7%)에 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. 지난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0.6%였으며, 도(道) 단위는 34.8%, 시와 군은 각각 35.9%, 17. 0%를 보였다.

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(지방세, 세외수 입)에서 자치단체 예산규모를 나눠 100을 곱한 것으로, 지자체의 재정 실태를 보여 주는 지표다. 여수 등 4개 시·군은 법인지 방소득세를 넘겨줄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 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.

전남도 관계자는 "전남도와 22개 시·군 은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자체 수 입이 적어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재정구조"라며 "도내 시·군 의 불균형 재정 해소에 앞서 이 같은 구조 에 대한 개선 대책이 있어야 할 것"이라고 /윤현석기자chadol@

청와대 비서실 개편 프로필

9급 서기보서 靑 비서실장까지 '행정의 달인'

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

'행정의 달인'이라는 별칭까지 붙은 정통 관료 출신이다. 제4회 행정고시에 합격, 공직에 입문한 뒤 서울시 5개 구청 장과 관선 충북지사, 서울시장 등을 역 임하고, 지난 1998년 지방선거에서 민선 2기 충북도지사에 당선돼 화려한 행정 경륜을 쌓았다.

1963년 체신부 서기보로 공직을 출발

했다. 공중전화 수금원으로 일하면서 야간대학에 입학해 각고의 노력끝에 1966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서울시청 사무관으로 서울시정에 발을 디뎠다.

▲충북 제천(74) ▲성균관대 행정학과 ▲청와대 비서실 행정비서관 ▲ 충북지 사 ▲서울시장 ▲서원대 총장 ▲ 충북도 지사 ▲대통령직인수위 법무행정분과 자문위원 ▲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▲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

기초연금 도입 등 박대통령 대선공약 산파역

안종범 정책조정수석

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의 산파역을 한 데 이어 경제수석으로서 실제 공약 집행의 윤활유 역할을 한 경제학자 출신 이다.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시절 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 회에 입성했다.

박근혜 정부의 대표 공약으로 꼽히는



기초연금 도입 등 선 굵은 정책 과제가 안 수석의 손을 거쳤다. ▲대구(57) ▲대구 계성고 ▲성균관대 경제학과 ▲미국 위 스콘신대 경제학 박

사 ▲제19대 국회의원 ▲제18대 대통령 직인수위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 ▲새누 리당 정책위 부의장 ▲청와대 경제수석

'박근혜표 경제공약' 입안한 정책통

강석훈 경제수석

걱정되시죠?

'박근혜표 경제공약'의 성안자로 꼽히 는 정책통 초선 의원이다. 경제학자 출 신의 강 의원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시절 박 대통령과 인연 을 맺었다. 선임 경제수석인 안종범 정 책조정수석 내정자와 선대위 시절부터 함께하며 박 대통령의 양대 '경제 브레



인'으로 불린다.

▲경북 봉화(52) ▲서라벌고 ▲서울 대 경제학과 ▲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▲제19대 국회

의원 ▲새누리당 정 책위 부의장 ▲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 /연합뉴스

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안내

전형일정

① 원 서 접 수 : 2016. 5. 30(월) ~ 6. 8(수)

② 전 형 일: 2016. 6. 10(금) ③ 합격자발표: 2016. 6. 14(화)

④ 등록기간: 2016. 6. 14(화) ~ 15(수)

※ 참고사항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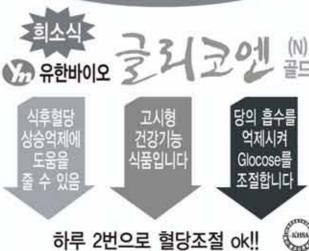
필기시험 해당학과: 신학과(Th.M.), 신학과(M.Div.)실기시험: 실용음악학과(M.A.)

모집학과 및 인원

대 학원	학위과정	모 집 학 과	모집인원
일반대학원	석사 -	신학과(Th.M.)	0
		유아교육학과(M.Ed.)	0
신학대학원	석사	신학과(M.Div.)	0
사회복지대학원	석사	사회복지학과(M.S.W.)	0
음악대학원	석사	실용음악학과(M.A.)	0

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입학문의 ▶ 0621 605-1115, 1024, 1021





식후 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.

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입니다.

"혈당조절"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● 3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 입니다.

※ 전화주시면 책, 자료,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※ Down NAVER 백세생활건강 ▼ 을 검색하세요 문의 н. 010-3598-7080/1899-3975



☎ 062) 222 - 2255, HP. 010 - 9441 - 7000

. 🚫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🛮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데문용